



각 보고서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으로 연결됩니다.

보도
자료

국민연금공단, 건강 분야 노후준비 지원 확대 나서

국민연금공단 2022.10.20

국민연금공단은 노후준비서비스 확대를 위해 한국소아당노인협회, 대한당뇨병연합과 업무협약을 맺음. 공단과 양 기관은 당뇨병 예방 등 건강 관련 콘텐츠 및 프로그램 공유·확산, 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 제공,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및 상호 홍보 등을 협력하기로 함

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되도록 자동차보험 수리기준을 개선하여 OEM부품 위주의 고비용 수리관행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

금융감독원 2022.10.20

금융감독원은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해 '품질인증부품 환급 특약'(자기차량손해만 적용) 가입 방식에서 한단계 나아가 대물사고 등에도 품질인증부품이 폭넓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수리기준을 개선하고 품질인증부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겠음. 경미손상 차량에 대해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가 가능해져 소비자의 효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
2022년 9월중 가계대출 동향(잠정)

금융위원회 2022.10.13

'22.9월중 전금융권 가계대출은 △1.3조 원 감소하여, 전월 증가했던 가계대출이 다시 감소로 전환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.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, 서민·실수요자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음

「내 손안의 금융 비서」가 보다 똑똑해집니다

-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항목 대폭 확대 -

금융위원회 2022.10.19

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가 금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확대되어, 기존 492개 정보 항목에서 은행, 보험, 카드, 금융투자, 공공 등 전 분야에 걸쳐 총 720개로 크게 늘어날 예정임. 향후, 『마이데이터 특별대응반』을 통해 확대된 정보항목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, 확대된 정보항목을 활용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신규·개선 서비스 제공현황을 안내할 계획임

21년 전체 사망자 중 80%, 만성질환으로 사망

질병관리청

2022.10.17

질병관리청이 발간한 「2022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」에 따르면, '21년 국내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전체 사망의 79.6%를 차지하였으며, 주요 만성질환의 유병률은 증가 추세임. 악성신생물(암)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의 26.0%를 차지했으며, 심뇌혈관질환은 17.0%, 만성호흡기질환 4.4%, 당뇨병 2.8%로 나타남. '20년 만성질환 진료비는 전년 대비 1.4% 증가한 71조 원으로, 전체 진료비의 85.0%를 차지함

장래가구추계[시도편]: 2020-2050년

통계청

2022.10.20

총 가구수는 2020년에는 경기(503만), 서울(395만), 부산(140만) 순으로 많았으나, 2050년에는 경기(658만), 서울(380만), 경남(139만) 순이 될 전망이다. 평균 가구원수는 2020년 최고 2.51명(경기)에서 최저 2.21명(경북) 수준이나, 2050년에는 2.05명(세종)에서 1.77명(강원·경북)까지 줄어들 전망이다. 2020년 대전, 서울 등 12개 시도는 1인가구, 이외 시도는 부부+자녀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, 2050년에는 모든 시도에서 1인가구가 가장 주된 가구유형이 될 전망이다

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높이려면 지원기간과 지원 수준을 동시에 제고해야

한국보건사회연구원

2022.10.18

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는 그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온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 제도로 의의가 있음. 그러나 현행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는 미미한 수준으로, 향후 취약계층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극대화를 위해 지원 기간 및 지원 수준 제고와 함께 지원 대상의 점진적 확대가 정책 효과를 높이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음

입법
자료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의원 등 11인

2022.10.12

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자동 가입되는 정책보험이고, 글로벌한 환경적 변화에 따른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의 대유행 및 재난 등이 빈번해지고 있어 15세 미만자로 단체보험의 피보험자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재의원 등 10인

2022.10.13

현행법은 보험금 때문에 피보험자가 살해되는 등의 악용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15세미만자, 심신미약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음. 그러나 천재지변·감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바, 이 경우 15세미만자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